



국제이주 전망 : SOPEMI 2010

국어 개요

- 경제 침체와 함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에도 국제 이주는 OECD 회원국의 주요 정책 의제로 남아 있다. 본 연간 간행물에서는 이주 흐름과 관련한 OECD 국가의 최근 동향 및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근로연령 인구 변화에 어떻게 기여했고 향후 10년간 예측되는 이주민 유입이 근로연령 인구의 성장 촉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처음으로 국제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국가에 남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서 국제학생 문제도 주의 깊게 다룬다.
- 본고에서는 이민자들의 입국, 체류 및 노동시장 접근에 관한 새로운 법률 등 이주정책 차원에 도입된 주요 변경 사항을 조사한다. 또한 이민자의 통합을 위한 촉진 방안에 더해 노동 시장의 수요와 점수제에 기반한 이민자들의 채용선발에 관해 설명하며 국경 통제 개선과 불법 이주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상세히 분석한다.
- 성별, 고용 부문 및 계약 유형을 고려하여 경제 위기가 이민자의 노동 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같은 기간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변화를 살핀다.

2010년 국제이주전망 보고서에서는 소폭 감소한 OECD의 이주 흐름을 보여주는데...

2008년에 외국인 중 합법적인 영구 이민자 수는 6% 줄어든 4,400,000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1% 증가한 이후로 첫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불과 일부 국가에 한한 감소를 대개 반영한 것이며 2007년에 특히 높았던 이주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경제 위기에 잇따라 이주민수가 줄면서 2009년에도 이주 흐름은 계속 하락했다.

... 특히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이 소폭 감소했다

2008년 전체 이주 가운데 자유이동지역에서 이주 비중은 OECD가 약 25%, 유럽은 44%였다.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는 전체 이주의 절반 이상이 자유이동지역 내 이주였으며 2008년에 영구 이민자의 20-30%가 업무로 이주한 경우였던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과 이탈리아는 전부 유럽의 대표적인 노동이민국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가족 이주가

영구 이민자 유입 부문에서 계속 우위를 차지하며 가족 이주가 지배적으로 남아 있는 국가는 미국(65%)과 프랑스, 스웨덴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있지만, 임시 이주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늘었던 임시 이주는 2008년에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 감소는 임시 노동 이주 프로그램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2008년 OECD에 입국한 임시노동이민자수는 230만여 명으로 4년간의 꾸준한 성장 후 4% 떨어졌는데 2009년에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조짐도 많은 상황이다. 2008년에 계절 노동,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다국적 기업의 사내 인사발령은 전부 늘어난 반면 나머지 이민 범주는 줄었는데 주로 고정된 기간의 노동 이민이 줄었다. 임시 노동 이민은 또한 경제 침체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이민 유형의 하나였다.

... 망명신청자 수는 계속 상승하면서

2006년부터 OECD국에서 망명 신청은 다시 늘어났다. 2008년 미국이 받아들인 망명자 수는 3940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캐나다와, 영국, 이탈리아도 전부 30만명 이상을 수용했다. 국민 1인당 기준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가 주요 난민 수용국이며 이라크, 세르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중요한 난민 출신국이다.

유학생 중 영구 거주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0-2007년, 국제학생 수는 2배 이상 늘면서 2백만 명을 상회했으며 주요 목적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호주였다. 비중이 가장 급격히 늘어난 국가는 뉴질랜드와 한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순이었다. OECD 입장에서 국제 학생들은 고속권 노동 이민자의 잠재적인 공급처인 바, 2010년도 국제이주전망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학생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 유학생들의 지위 변화 등 체류 비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체류비율은 15-35% 수준이며 평균 21%인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을 전체 흐름의 10%를 차지하며 폴란드, 인도, 멕시코는 그 절반 수준이다.

2008년 이주민 유입을 보면 상위 20개 출신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국, 폴란드, 인도, 멕시코가 최상위국이였다. 90년대 후반의 인구 이동에 비한다면 콜롬비아, 중국, 루마니아, 모로코 출신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우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필리핀과 러시아 출신의 이주민은 줄고 있다. 2008년 폴란드 출신의 유럽 이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해에 많은 OECD국에서 인구 성장의 대부분과 근로연령에 접어든 인구의 상당 부분이 국제이주에 의한 것이었다.

만일 이주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OECD국의 근로연령 인구는 2010-2020년 1.9%의 증가율을 보일 것인데 이는 2000-2010년의 8.6% 증가율과 대조되는 수준이다. 2003-2007년, 이주 인구가 인구성장률의 59%에 기여했으며 물론 이주민 자녀나 고령의 이주민이 그 기여도를 줄일 수 있지만 이주 인구가 근로연령에 들어선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프랑스, 미국과 뉴질랜드만이 인구의 자연 증가가 인구 성장의 주 동력이 되었다. 남부 유럽, 오스트리아, 체코 등 여러 국가에서 인구 성장의 약 90%는 이주에 의했다.

그러나 더 많은 고용 성장이 국제

이주자보다는 국내 거주자 취업률 증가에 따른 결과였다.

OECD 국가마다 그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만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는 51%가 내국인 취업률 증가, 39%가 국제 이주에 따른 결과였다.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등 주로 내국 인력 동원을 늘려 고용 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다수 경우에 취업률이 7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고용 성장이 크게 외부 요인에 의했던 국가들은 영국을 제하면 그 취업률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금년 보고서에서는 이주정책의 구조적, 제도적 동향을 살핀다..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점수제 활용 등 고숙련 이주자에 계속 초점을 두었으며 호주, 캐나다에서는 영구 프로그램 차원의 일자리 지원자를 장려하기 위해 공급중심체도로의 전환을 계속하였다. 스웨덴만이 모든 숙련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민을 개방했지만 호주,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저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방이 계절노동 프로그램을 일부를 수정하는 것에 그쳤다.

... 통합 및 귀화 정책도 살피는데

가족 재결합 정책에 일어난 변화는 거주 및 소득 요건과 같은 제한 기준을 부과하려는 경향이었다. 가족의 재결합과 귀화의 전제조건으로 언어나 시민 테스트 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

일부 변경 사항은 특히 금융 위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2008-09년의 수많은 신규 이민 정책은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목표를 두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노동 이주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입국 기준을 재정립 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실직 이주자가 임시 허가를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도입했으며 스페인, 일본, 체코는 이들의 귀국을 위한 지원을 제공했다.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호주는 이민 할당량을 감축했다.

본고에서는 경제위기가 OECD 이민자 취업에 미친 불균형한 영향을 살핀다.

2008-09년,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실업 증가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사이에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 경우에 취업률 하락이 더 심하긴 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이민자의 노동참가율이 늘면서 그 영향이 상쇄되었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경기 침체와 함께 내국인 고용이 감소했던 반면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고용은 현저히 늘었다. 그럼에도 고용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력 증가를 따르지 못했다.

특히 젊은 이주자가 영향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외국인 청소년은 내국인 청소년보다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15-24세 청소년의 총고용은 2008년 2.2분기 이후 이듬해에 7% 감소한 반면 이주 청소년의 감소율은 2배였다. 또한, 이미 이주 청소년 사이에 높은 수준이었던 실업률은 2009년에 미국, 캐나다, EU-15에서 각각 15%, 20%, 24%에 이르렀다. 청소년과 최근 입국한 이민자를 신속히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이 그들의 통합에 결정적인 요소로 확인된 만큼 낮은 취업률은 걱정스런 일이다. 경기 침체는 "휴터 효과"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입국 후 빠른 시일 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민자는 노동 시장에서 비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침체기에는 언어, 직업훈련, 멘토링 및 견습이 특히 강화해야 할 중요한 정책 대응으로 보인다.

... 이민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은

상황이지만

외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보다 경제 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는데 남성은 건설, 제조, 금융 같이 경제위기의 타격이 심하 분야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와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외국인 여성 실업률은 같은 입장의 남성보다 덜 증가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이 노동참가를 높였는데 그들의 가족 구성원인 남성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민자들이 쉽게 실업자로 전락하게 하는
요소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시행을 보다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민자는 경제 변동에 민감한 분야에 더욱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계약 조건이 보통 덜 안전하며 더 자주 임시직에 고용된 상태며 근속기간이 짧다. 그리고 선별적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제도나 최소 근속기간이나 영구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제도 틀에서는 체류 기간이나 행정상 지위를 취업 자격에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이민자는 특정 조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민자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영역을 확인한다.

*2개의 별도 장에서 주요 사안을
다루는데...*

2가지 쟁점 사안을 2개의 별도 장에서 다루는데 첫 장에서는 이민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살피고 이어 귀화의 결정요인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첫 장에서는 여론과 이주 사안에 대해...

첫 장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수많은 여론 조사 분석을 토대로 이민에 대한 여론 형성에 관해 새로운 경험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데 이민이 경제, 문화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이주정책상의 선호도 형성 차원에 개인 특성이 갖는 역할을 평가한다. 여론 분석을 통해 나타난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이민이 경제, 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 국가의 이민 개방에 대한 개개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민 문제와 이주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은 여전히 이 문제가 언론에서 다루지는 방식이라든지 일부 집단적인 신념의 결과에 의해 거의 결정되는 현실이다. 일부 인구층에서는 소득분배 효과뿐 아니라 무엇보다 문화적 다양성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이민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민 사안에 대한 여론 합의를 끌어내다든지 대중의 신념과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주정책 개혁은 이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보다 잘 알릴 필요가 있는 바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이민 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와 비교가능한 국제이주통계에 보다 수월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익 집단과는 관련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유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은 이주문제를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룸으로써 이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 장에서는 귀화가
노동시장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OECD 국가의 이민자는 시민권 취득에 있어 큰 차이를 드러낸다. 이주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합법 이주자들이 도착 후 10년 이내에 국적을 취득하며 유럽의 OECD 국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귀화한 장기 체류 이민자 비중이 늘었다. 이주자들의 귀화 비중은 이주 집단마다 차이를 보인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민권 취득률은 OECD 고소득국 출신의 이민자보다 저소득국 출신 이민자 사이에 높은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민 남성보다는 이민 여성이, 그리고 고등교육 학력자들이 수용국의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귀화한 이민자는 노동시장 성과도 나은 편인데 특히 저소득국 출신 이민자와 이민 여성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미 귀화한 이민자는 귀화 이전부터 더 좋은 노동시장 성과를 거두었지만 귀화 후에도 성과가 더 개선되어 귀화는 그 자체가 이민자 '노동시장 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낮은 노동시장 장벽, 높은 유동성, 차별 감소 등이 성과 개선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귀화는 특히 보수가 나은 일자리와 공공부문 취직에 접근할 기회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번째 장에서 던져진 시사점의 하나는 이중 국적 제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자격조건과 같은 장벽을 낮춤으로써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수용국 국적 취득에 격려가 될 것이다.

© OECD 2010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